

순서

유권자와 함께 훑어보는 '2022 지방선거 보도'

사회 김대경 동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부산민언련 부대표)

발표 지역언론 지방선거 보도 모니터 신문·방송 총평

_문미진·김보영 부산민언련 활동가

지정토론 '내가 본 지방선거 보도 평가, 유권자를 위한 변화 모색'

강주현 부산대 연구교수

권보영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공익콘텐츠 서포터즈(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김민지 (사)부산청년들 김민지 이사(부산청년유권자행동 활동)

노정현 제8회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후보(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

민성빈 부산MBC 정치담당 기자

박찬형 시민선거캠프 '동백' 운영위원장(부산참여연대 운영위원)

오혁진 부산민언련 2022 지방선거보도 시민모니터단

기울어진 판세에 선거 동력 우려 반복 지역 현안도 유권자 의제도 실종

정리 : 부산민언련 2022 지방선거 보도 모니터단 신문팀

- 모니터 기간: 2022년 4월 18일(월) ~ 2022년 5월 31일(화)
- 모니터 매체: 국제신문, 부산일보
- 모니터 대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기사 중 부산지역 기사 보도

1. 2022 6·1 지방선거, 부산의 입장에서 돌아보다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85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2일 만이었다.

통상 지방선거 D-100을 기점으로 출마자가 거론되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시기상 대통령 선거의 시간 속에서 진행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부산일보는 <‘깜깜이 지방선거’ 해도 해도 너무한다>(사설, 2/22)에서 지방선거를 확대하는 중앙정치권을 비판하며 저조한 예비후보 등록, 선거구 획정 지연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방선거 국면에서 언론은 제8대 지방선거를 ‘대선 2라운드’, ‘허니문 대선’, ‘포스트 대선’이라 수식하며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대선의 연장 격이라 규정했다(참고. 신문 3차 모니터 보고서).

중앙정치가 아닌 부산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제8회 지방선거는 ‘대선 연장전’ 외에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 여럿 있었다.

먼저,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2021년 4·7 보궐선거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치러진다는 특징이 있었다. 특히 지난 보궐선거에서 박형준 시장에 제기된 의혹,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시정에 대한 점검과 함께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교육감 선거는 보수 진영이 일찍이 단일화를 이뤄내면서 첫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고, 무엇보다 만 18세 시민이 참여하는 첫 교육감 선거로 청소년이 교육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했다. 특히 두 후보는 공천이 한창일 때 일찍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하윤수 3/21, 김석준 4/25). 그만큼 언론은 두 후보에 대해 검증할 시간이 더 있었음에도,

정당 공천 시기에 교육감 선거보도는 지역정치권, 대통령 당선인과 특정 후보의 '인연'을 강조 하는데 머물렀다.

앞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는데, 기초의원 선거구를 3~5인으로 개편하는 안을 포함했다. 중대선거구제 확대에 기대가 모일 수밖에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부산의 진보 정당인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부산시당은 3월 30일 6월 지방선거를 위한 공동대응기구 출범해 13명의 단일후보를 확정하면서 진보 계열 정당 후보의 시의회 입성을 위해 연대했다.

부산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 획정위도 2인 선거구를 줄이는 대신 3인 선거구를 늘리고, 한 곳도 없는 4인 선거구를 10곳 신설하자고 주문하기도 했다(부산일보, 5/3). 하지만 획정위의 조정안은 무산됐고, 부산시의회는 지방선거를 35일 앞둔 4월 27일에 2인 선거구를 대폭 늘린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국제신문은 4월 29일 자 사설 <4인 선거구 달랑 1곳... 민주당의 지방선거 내로남불>을 통해 정치개혁 주장이 명분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2. 2022 지방선거 신문보도 모니터 6차례 발표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지방선거보도 시민모니터단(2022 지방선거보도민언련감시단_부산)은 지방선거 D-45를 기점으로 모니터를 시작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의 '부산지역 선거'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매주 모니터를 진행했다. 총 6차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1·2차 보고서 기간(4/18~5/1)은 예비후보 등록 시기로 각 정당의 공천 시간이었다. 이에 보도 내용도 공천·경선에 집중됐다(참고. 표1). 모니터 보고서는 공천 과정·시스템에 대한 점검 부재와 갈등 부각을 지적하고, 지역 의제를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교육감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 검증 보도를 할 수 있었음에도 기존의 정치 논리로만 보도하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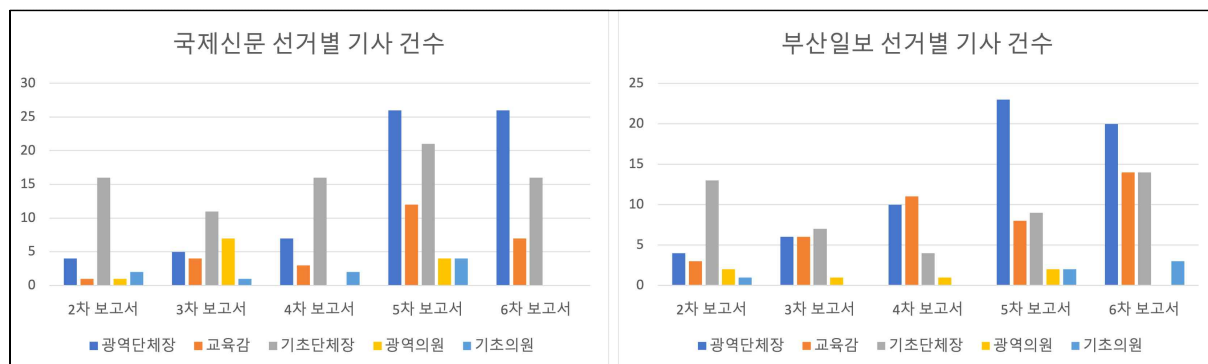
주요 내용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정책(전달, 검증, 분석 등)	0	1	1
공천/경선	10	11	21
선거판세 여론조사	0	0	0
행보/동정	5	2	7
선거전략	1	1	2
유권자 활동(정책제안 등)	0	0	0
선거 사무(선거구획정 등)	2	0	2
기타	1	2	2

주요 내용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정책(전달, 검증, 분석 등)	0	5	5
공천/경선	14	13	27
선거판세 여론조사	3	0	3
행보/동정	6	3	9
선거전략	0	1	1
유권자 활동(정책제안)	0	0	0
선거사무	2	1	3
기타	0	4	4

△ <표 1> 보도 내용별 건수 (좌) 1차 보고서(4/18~4/24), (우) 2차 보고서(4/25~5/1)

3차 보고서 기간(5/2~5/8)은 D-30진입 시기로 정당의 공천·경선 마무리 단계였다. 선거 주변부 정보에 가까운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국회의원, 거대 양당의 공천 내홍을 강조하는 한편,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광역비례대표 의원은 보도하지 않거나 부족해 유권자보다는 정당 중심 선거보도가 이어졌다. 부산일보는 선거기획으로 부산시장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했고, 국제신문은 유권자 행동을 보도하기도 했다.

4차 보고서 기간(5/9~5/15)은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 되고 후보 등록이 이뤄지면서 선거보도 역시 본궤도에 올랐다. 5월 9일 자 신문에 국제신문은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부산일보는 ‘부산 기초단체장 선거 대진표’라며 공천 결과를 정리했다. 공천이 마무리됨과 함께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보도는 줄어들고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중심의 선거 보도가 이어졌다(참고. 그림1)



△ <그림 1> 선거별 기사 건수

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역 기초단체장 11명 중 10명이 단수공천을 받은 만큼 공천 이후 현직 단체장에 대한 평가와 검증이 본격화될 것을 기대했지만 국제신문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와 부산일보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현장에서 만나다’는 후보가 내세우고 싶은 경력, 슬로건, 주요 공약 등을 나열하는 기사 형식이었다. 심지어 부산일보는 8개 지역구의 기초단체장만 ‘현장에서 만’났다.

5차 보고서 기간(5/16~5/22)이었던 5월 19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선거보도 건수도 대폭 증가해 대부분의 보도가 늘었지만, 그중에서도 행보·동정 기사의 증가가 눈에 띄었다. 군소정당 출대도 여전했는데 특히 부산지역 4개 진보정당(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의 출정식 개최 소식마저도 <이 와중에 중앙당 성추문까지…부산 정의당, 제3당 지위 지킬까>(부산일보, 5/18, 5면)에서 한 단락 할애에 그쳤다.

광역단체장 중심의 선거 기획에서도 군소정당 후보 출대가 이어졌는데, 국제신문 ‘부산시장 후보 맞짱 토론회’와 부산일보 ‘후보가 후보에게 묻다’ 모두 정의당 김영진 후보는 제외했다. 또한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가 부재한 시점에 ‘맞짱’, ‘묻다’와 같은 선거 기획만 내놓음으로써 언론이 해야 할 ‘검증’의 역할을 상대 후보의 몫으로 돌려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4·7후보 검증 시리즈’, ‘4·7쟁점현미경’과 같은 기획을 통해 언론이 ‘직접’ 후보와 공약을 검증했던 것과는 차별되는 지점이다.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로 사전투표가 실시된 6차 보고서 기간(5/23~5/29)에 들어서야 교육감, 기초단체장, 교육감의 공약을 검증하는 선거기획 기사가 이어졌다. 국제신문의 ‘공약 팩트 체크’가 대표적으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어반루프’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부산일보의

‘후보 공약 딥풀이’는 검증보다는 상세한 설명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제신문은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통상 지방선거 두 달 전, 선거 직전 두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만 부산일보는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 보도를 하지 않았고, 국제신문만 한 차례 진행했다. 부산일보는 사전투표 하루 전날, ‘부산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의 마지막 순서로 박형준 후보의 인터뷰를 배치했다.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에 ‘돌직구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5월 14, 15, 17, 18, 21일에 걸쳐 부산시장 후보 인터뷰 기사를 배치했던 것과 달리 이번 선거에선 4월 27일, 5월 5일, 5월 26일로 기사 간 연속성이 없었다. 무엇보다 박형준 후보 인터뷰가 사전투표 하루 전날이었다는 점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여지도 있었다.

	모니터 기간	선거 일정	보고서 키워드
1차 보고서	4/18~4/24	예비후보 등록(~5/11) 국민의힘 공천시험(17일) 각 정당 공천	공천 갈등 부각 공천 과정 점검 부재 지역의제 발굴 부재
2차 보고서	4/25~5/1	선거구획정(27일)	기초단체장 공천 치중 양당 중심 보도 지역의제 확장 필요 교육감 보도 정파성 선거구획정 보도 불친절
3차 보고서	5/2~5/8	후보 확정	공천 결과 주요 보도 D-30, 판세·선거전략 정치무관심 우려 선거기획 유권자 행동 보도
4차 보고서	5/9~5/15	후보 등록(12·13일)	후보·공약 단순 전달 광역·기초의원 보도 감소 선거분위기 우려 유권자 행동 외면 현직프리미엄? 후보띄우기?
5차 보고서	5/16~5/22	공식선거운동(19~31일) 선거공보 발송(22일)	기획기사 본격화 군소정당 후보 확대 후보 간 공방으로 검증 대체
6차 보고서	5/23~5/29	사전투표(28·29일)	공약 중심 선거기획 공식 후보자 토론회 외면 여론조사 보도 사전투표 앞둔 보도 경향

△ <표 2> 2022 6·1지방선거 타임라인 및 보고서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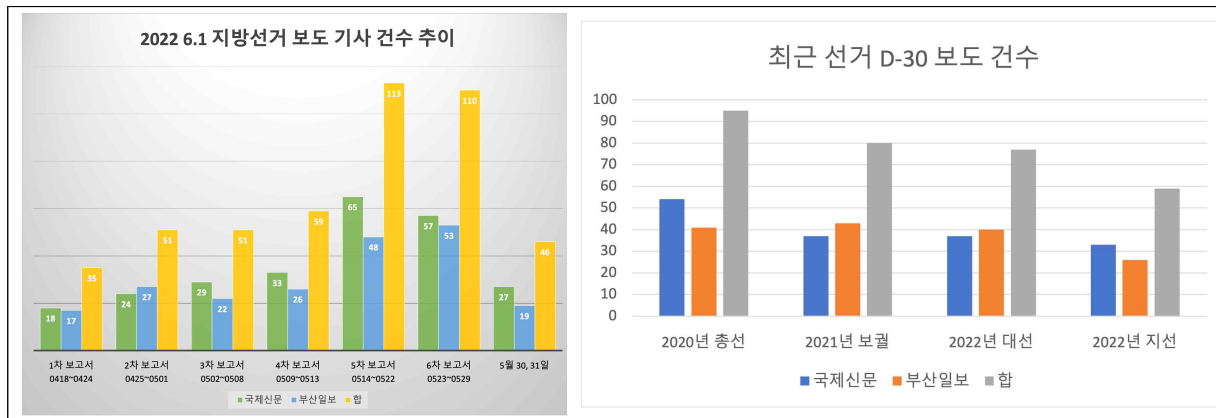
3. 2022 6·1 지방선거 부산지역 신문보도 특징

대통령 선거 이후 85일 만에 치러지게 된 지방선거. 사상 초유의 상황 앞에서 지역신문이 앞다퉈 우려한 것은 ‘떠오르지 않는 선거 분위기’였다. 부산일보는 <관심도 떨어진 PK광역단체장 선거…수도권 대진표는 ‘흥행’ 예고>(4/11, 4면)를 통해 광역단체장 거대 양당 후보가 경선 없이 본선을 치르게 된 것을 두고 ‘김이 빠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부산일보에서는 <민주 ‘대선 열기’ 어디갔나…썰렁한 부산시장 선거 출정식>(4/19, 6면), <분위기 안 뜨는 부산 지선… 전국 최저 투표율 나올라>(5/6, 1면), <분위기 안 뜨는 부산 지방선거>(5/12, 사설)와 같이 ‘선거 분위기’ 자체를 기사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선거 결과를 단정 지은 기사 제목을 내보이기도 했다. 부산일보 <국힘 국회의원들 “지선 완승 기쁘지만은 않아”>(5/23, 5면)와 국제신문 <시의회 교섭단체 쟁탈전…민주 “우리도” 국힘 “우리만”>(5/31, 3면)이 대표적이다.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완승’을 확정하고, 시의회 독식 여부를 기사화 한 것이다.

선거 분위기, 선거 무관심에 대한 우려와 잠정 지어 내린 기울어진 판세는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저조한 선거 보도 건수, 부실한 기획 기사, 검증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특징1. D-30, 선거보도 51건! 최근 선거 중 가장 저조



△ <그림 2> 최근 총선, 보선, 대선, 지선 보도건수 추이

D-30을 기준으로 2022년 6·1지방선거는 59건이었다(국제신문 33건, 부산일보 26건). 2020년 국회의원선거, 2021년 보궐선거의 D-30 당시 보도 건수와 비교해 봤다.

2020년 총선 95건(국제신문 54, 부산일보 41), 2021년 보궐선거 80건(국제신문 37건, 부산일보 43건)으로 두 선거 모두 2022 6·1지방선거보다 많았다. 가장 최근 선거였던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77건(국제신문 37건, 부산일보 40건)이었다. 보도건수로만 봤을 때, 선거 한 달 전 보도는 이번 6·1 지방선거가 가장 저조했다.

플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지역신문은 사실과 칼럼으로 유권자의 투표를 독려하고 현명한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지역언론은 총선, 대선보다도 못 한 선거보도 건수를 보여줬다. 모든 선거가 그러하겠지만 총선, 대선과 비교했을 때 지방선거에서야 말로 지역언론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특징2. 늦어진 선거 기획, 2018년 지방선거 보도와 비교해 보니...

국제신문	부산일보
동네를 바꾸는 백자의 힘-시민선거캠프 '동백' 부산시장 후보 맞짱 토론회 공약 팩트 체크 부산시장 후보 선거운동 24시 시민패널단에 듣는다	부산기초단체장 후보-현장에서 만나다 후보가 후보에게 묻다 부산시장·기초단체장 공약 '딴' 풀이

△ <표 3> 2022 6·1지방선거 기획보도 목록

국제신문은 2018년 6·13 지방선거 기획 '시민의 정책제언(부산참여연대 공동 기획)'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시민 1,072명에게 공약 제안을 받아 소개하는 '시민선거캠프 동백' 기획을 선보였다. 4월 14일 자 1면을 통해 캠페인 진행을 알렸고, 이후 5개 분야 100개 공약으로 재구성해 각 시장 선거 캠프에 전달, 채택수용 여부를 질의하는 것까지가 계획이었다.

국제신문 기사로는 선거 보름 전 게재됐고 100자로 작성한 공약을 워드 클라우드로 보여주는 데 그쳤다. '시민선거캠프 동백'의 일부만 기사화해 아쉬움을 남겼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 한 달 전 보도를 시작해 부산시 조직, 산하기관 '관피아', '숙의민주주의', '건강·환경',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바 있다.

[참고]

[국제신문 <6.13지방선거...시민의 정책 제언 <1> 부산시 조직부터 바꾸자>\(2018-04-18\)](#)

[국제신문 <동네를 바꾸는 백자의 힘...시민선거캠프 '동백' <1> 시민 제안 공약 분석 >\(2022-05-18\)](#)

또 국제신문은 '시민패널단에 듣는다'라는 기획도 마련했는데, 이 역시 선거를 앞둔 마지막주에 보도했고 심지어 복지정책 분석은 사전투표 이후에 보도해 아쉬움을 남겼다. 2018년 당시 국제신문은 '주목 이 공약'이라는 기획으로 선거 보름 전부터 생활복지, 일자리.민생, 환경, 대중교통, 소외계층 분야 정책 중 주목할 만한 공약을 정리해 전달했다.

[참고]

[국제신문 <주목 이 공약 <1> 생활 복지 분야 정책>\(2018-05-30\)](#)

[국제신문 <시민패널단에 듣는다 <1> 부산시장 후보 청년정책 분석>\(2022-05-27\)](#)

부산일보와 비교했을 때 유권자로부터 직접 공약 제안을 받고, 시민이 직접 후보의 정책을 분석하는 기획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시민으로부터 받은 정책과 평가를 후보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후보 인터뷰를 통해 유권자에게도 후보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향후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 기획보도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부산일보는 유권자, 시민과 함께하는 선거보도 기획을 찾아볼 수 없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국제신문과 같은 시도는 없었으나 그럼에도 <클릭! 지방선거 맞춤형 후보 찾기 '마이보트'>와 같은 기획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페이지를 구축하고, 또 지방선거보도 자문단을 구성해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이번 지방선거 보도 기획이 더욱 미진했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이번 6.1지방선거에서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의 기획을 평가해 보자면 유권자, 시민과 지방선거를 연결하려는 시도는 국제신문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두 신문사 공통적으로 선거 기획 보도 시기가 늦어졌고, 유권자와 시민보다는 후보자와의 토론, 인터뷰 등으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징3. 지선, 총선, 대선... 시간이 흘러도 선거가 바뀌어도 again 가덕신공항!



△ <그림 3> 부산일보 가덕신공항 이슈 강조 헤드라인 (좌) 2018/05/07 (우) 2022/05/18

선거 쟁점 형성 측면에서도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가덕신공항을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경제활성화,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등이 이슈로 떠오른 반면, 이번 선거에서는 쟁점에 대한 주목이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공법’ 정도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2018년 지선부터 총선, 보궐, 대선 이번 지선까지 4년이 흘러 지역사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도 늘었고, 무엇보다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후보자의 역할에 맞는 선거 의제 설정이 필요한데도 ‘가덕신공항’만 띄우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2018년 지방선거 보도를 되짚어 보면, 당시 언론은 거대 개발담론과 함께 환경 이슈를 띄우기도 했다.

[참고]

[〈시장 후보들 ‘환경도시 부산’ 정책 원가〉\(부산일보, 2018년 5월 4일, 사설\)](#)

[〈거창한 공약보다 환경개선 바라는 유권자 의식〉\(국제신문, 2018년 5월 18일, 사설\)](#)

[〈유권자 눈길 잡는 데는 성공, 실현 가능성은 ‘글썸’〉\(부산일보, 2018년 6월 11일, 3면\)](#)

한국언론진흥재단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 ‘빅카인즈’에서 선거보도 모니터 기간 광역단체장 후보 3인의 이름을 검색어로 넣어 국제신문, 부산일보 기사 경향을 살펴본 결과 역시, 지역 현안이 치우쳤음을 보여준다(참고. 표2). 국제신문의 김영진 후보 기사의 연관어를 제외하고 모두 연관어에서 ‘가덕신공항’이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덕신공항 외 공통적으로 나타난 지역현안은 없었다. 부산시장 후보 기사에서 등장한 키워드 대부분이 상대 후보와 정당, 선거행보에 치우친 반면, 지역 현안 발굴과 후보 검증은 소홀했던 것이다.

김영진 후보의 경우 3대 공약 중 하나였던 ‘대중교통 월 1만 원 무제한 이용’이 키워드로 나타났다. 또 박형준 후보는 국제신문, 부산일보 모두에서 ‘업무협약’이 키워드로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소더비 부산’, ‘요즈마 펀드’ 등과의 업무협약 대상이 논란이 됐음에도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박형준 후보와 ‘업무협약’은 검증의 키워드가 아닌 후보가 지난 임기를 평가하는 가운데 등장했다. 변성완 후보는 후보, 정당, 선거사무 외 공약 관련 키워드로는 ‘글로벌 메가시티 중심도시’가 유일했다.

국제신문-김영진 후보(26건)			국제신문-박형준 후보(74건)			국제신문-변성완 후보(58건)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빈도수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빈도수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빈도수
박형준	5	67	부산	13.08	769	박형준	18.53	134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4.44	20	변성완	12.86	115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17.11	27
부산	3.53	321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8.89	37	부산	10.21	667
변성완	2	56	부산시장 선거	7.2	25	부산시장	7.24	163
지지율	1.5	31	민주당	6.15	188	부산시장 권한대행	5.54	13
기자회견	1.5	18	정의당 김영진 후보	5.48	18	민주당	5.48	188
6-1 지방선거	1.33	7	부산선대위	4.12	20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4.24	4
예비후보	1.33	6	간담회	3.53	14	김영진	3.53	45
부산분권운동본부	1.33	0	김영진	3.08	45	정의당 김영진 후보	3.33	18
대중교통	1	1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4	8	지지율	3.2	37
선거전	1	10	부산시장 권한대행	2.18	11	6-1 지방선거	3.08	17
단일화	1	6	가덕신공항	2	69	지방선거	2.67	79
진보정당 단일	1	6	보궐선거	2	21	출정식	2.4	16
구심점	1	2	부산시장 후보들	2	6	총력전	2.4	4
대규모 사업	1	2	대한민국	1.71	11	원팀	2.31	10
토론회	0.8	8	총력전	1.71	4	선대위	2.22	47
무제한	0.8	6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1.71	3	부산시장 선거전	2.22	4
중소기업	0.8	4	오른쪽 사선	1.71	2	가덕신공항	2	54
저소득층	0.8	3	김근모	1.5	2	본격화	2	8
공공형	0.8	2	구청장	1.33	82	선거운동 실무	2	3
노약자	0.8	1	토론회	1.33	19	후보자	1.71	42
대중교통 뿔 1만	0.8	1	지지율	1.33	11	선거전	1.71	15
동래역	0.8	1	코로나19	1.33	10	부산시장 후보 공약 분석	1.43	0
의료복지 시행	0.8	1	지지자들	1.33	6	경남	1.33	46
적극 검토	0.8	1	이성권	1.33	5	보궐선거	1.33	21
집중유세	0.8	1	시의원	1.33	4	토론회	1.33	21
청년세대	0.8	1	업무협약	1.33	3	예비후보	1.33	18
			시민 관심	1.33	2	국회의원	1.33	17
			선거대책본부장	1.2	7	글로벌 메가시티 중심도시	1.33	4
			어린이 공약	1.2	1	자별화	1.33	4
						명예선거대책위원장	1.33	1
						선거대책본부장	1.2	7
						간담회	1	11

부산일보-김영진 후보(47건)			부산일보-박형준 후보(239건)			부산일보-변성완 후보(100건)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빈도수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빈도수	키워드	가중치	키워드 빈도수
박형준	26.72	105	부산시	30.48	515	박형준	50.24	224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15.67	52	부산시장 후보	20.57	142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23.62	31
부산시장 후보	10.48	101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20.44	62	부산	18.62	1398
변성완	9.92	107	변성완	16.04	158	정의당 김영진 후보	15.35	36
부산	9.07	681	정의당 김영진 후보	11.63	26	6-1 지방선거	14.12	67
6-1 지방선거	8.57	33	6-1 지방선거	11.31	31	김영진	10.23	93
사전투표	4	52	업무협약	4.87	20	민주당	8.43	503
후보 등록	3.2	26	차별화	4.42	22	부산시장 후보들	7.24	15
TV 토론회	2.86	8	플로팅 공법	3.68	8	부산시장 선거	6.74	28
노동자	2.31	32	사전투표	3.33	65	부산시민공원	6.52	12
김석준	2.31	13	윤석열 정부	3.33	37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4.67	6
정의당 재공	2.31	3	부산시장 선거	3.33	12	후보 등록	3.11	29
민주당 변성완 후보	2.22	19	부산시민공원	3.33	10	기자회견	3.08	41
생활밀착형 공약	2.22	6	가덕신공항	2.67	99	더불어민주당 재공	3.08	4
부산 출마자	2	6	울산	2.67	27	시장 권한대행	3	27
가덕신공항	1.71	41	특표율	2.47	21	TV 토론회	3	9
지지율	1.71	23	실현 가능성 변성완	2.47	0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2.77	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71	8	가덕	2.4	112	윤석열 정부	2.73	65
합동유세	1.71	7	시청 앞 행복주택	2.4	10	지지율 결집	2.73	11
연일 강행군	1.71	3	소신 부족	2.4	4	위원장	2.4	125
정대현	1.6	9	후보 등록	2.31	14	정책 대결	2.4	19
유세차량	1.6	2	기념촬영	2.31	3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2.4	18
금융위	1.5	4	지역사회	2.18	15	김석준	2.31	22
영도	1.33	29	여론조사	2	15	이재명 종말선대위원장	2.22	6
압도적 지지	1.33	5	강행군	2	8	가덕	2.18	139
주민들	1.33	5	이날 협약식	2	2	이재명	2	38
집중 유세	1.33	4	한컴그룹	1.67	18			
대중교통	1	20	전문가	1.6	25			
			협치	1.5	7			
			6-1지방	1.5	3			

△ <그림 4> 빅카인즈로 살펴본 광역단체장 후보 보도 건수와 주요 키워드

유권자보다는 후보자, 정책보다는 판세에 집중한 지역방송 후보자·유권자 균형보도로 선거의제와 관점의 다양화 확보 필요

정리 : 부산민언련 2022 지방선거 보도 모니터단 방송팀

- 모니터 기간: 2022년 4월 18일(월요일)~5월 31일(화요일)
- 모니터 매체 : KBS부산 <뉴스9>, 부산MBC <뉴스데스크>, KNN <뉴스아이>
- 모니터 대상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보도 중 부산지역 보도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선거 보도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해 약 50일간 지역언론을 모니터링 하였다.

지방선거는 여느 선거와 다르게 중앙정치와 분리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지역별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의사 결정과 집행,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지역 스스로 져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선거에서 지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열쇠를 지역언론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유권자가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 및 공약을 전달하는 역할, 지역의 쟁점과 현안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역할, 공정선거를 위해 선거를 감시하고 선거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 등이 모두 지역언론이 해야 할 일이다.

부산의 지역방송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6주간의 지방선거 보도 모니터 결과를 정리하며 선거시기 지역방송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돌아본다.

보도유형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리포트	37	27	30	94
단신	40	26	28	94
기획(인터뷰)	14	29	12	55
합계	91	82	70	243

△ <표 1> 선거보도 건수 및 보도유형별 건수

지방선거 관련 보도건수는 총 243건으로 리포트 94건, 기획보도 55건, 단신 94건이었다. 방송사별로는 KBS부산 91건, 부산MBC 82건, KNN 70건으로 KNN의 경남 지역 선거보도를 모니터대상에

서 제외한 점을 감안하면 방송 3사가 비슷한 건수로 지방선거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하지만 각 방송사의 보도유형에서 KBS부산은 단신이 44%(40건), 부산MBC는 기획보도가 35.4%(29건), KNN은 리포트가 42.9%(30건)으로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KBS부산은 선거일정 및 선거 사무와 관련된 단순 정보를 많이 전달했고, 부산MBC는 지방선거의 의미와 문제점을 짚은 기획물을 많이 선보인 결과다. 반면 KNN은 기획보다는 일반적인 리포팅 기사를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정책을 짚어보는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KBS부산은 모니터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뉴스7>의 ‘대담한K’와 ‘키워드 이슈’ 코너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 이슈와 후보 인터뷰를 진행하여 심층적인 선거보도를 선보였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진부한 선거이슈별 프레임

- ⇒ 공천·경선 보도는 ‘갈등부각’
- ⇒ 후보 보도는 ‘구도·승패만 부각’
- ⇒ 선거운동 보도는 ‘행보·전략 부각’

선거 시기별 보도건수를 보면, 후보 등록이 있었던 5월 12일 기점으로 보도량이 점점 증가해, 5월 19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보도건수가 대폭 증가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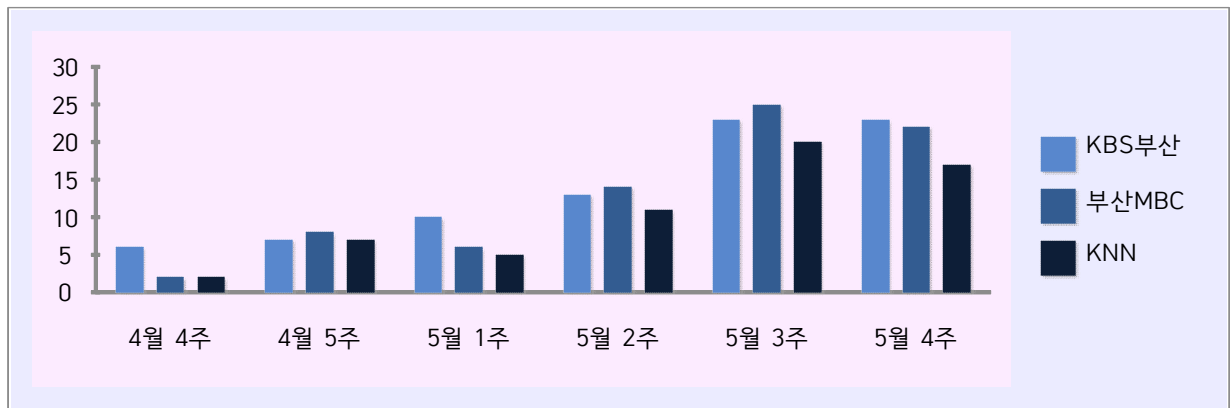
기 간	선거 일정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4월 4주(4/18~4/24)	정당 공천/경선	6	2	4	12
4월 5주(4/25~5/1)	선거구 획정 결정	7	8	7	22
5월 1주(5/2~5/8)	후보 공천 마무리	10	6	5	21
5월 2주(5/9~5/15)	후보 등록	13	14	11	38
5월 3주(5/16~5/22)	선거운동 시작	23	25	20	68
5월 4주(5/23~5/29)	사전 투표	23	22	17	62
5월 5주(5/30~5/31)		9	5	6	20
합 계		91	82	70	243

△ <표 2> 시기별 선거보도 건수

4월 4주, 5주에는 각 정당의 공천·경선이 진행되는 시기로 선거보도 대부분이 공천 갈등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민주당 후보 달리는데...국힘은 공천 ‘내홍’>(KBS부산, 4/18), <부산시장 대진표 확정, 구청장은 진통>(부산MBC, 4/18), <공천 파열음, 여야 탈당 이어질까>(KNN, 4/18), <국민의힘 기장군수 경선 컷오프 탈락자 항의 집회>(KBS부산, 4/24), <PK 국민의힘 경선배제 후보들 반발 잇따라>(KNN, 4/24) 등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반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공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에 대한 원인을 짚기 보다는 항의 집회, 삭발 등 갈등상황만 전달해 본격적인 선거시기 전부터 유권자로 하여금 정치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정당의 공천과정도 유권자에게는 평가 대상이다. 단순한 공천 결과 나열보다 각 당이 내세웠던 공천의 기준에 따라 후보가 정해졌는지, 공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공천 기준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짚어주는 보도가 유권자 판단에 더 의미 있는 선거정보일 것이다. 공천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절차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없이 당의 갈등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는 유권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그림 1> 시기별 보도건수 추이

4월 5주는 부산시의회 선거구획정 결정으로 4인 선거구가 10곳에서 1곳으로 축소돼 ‘시의회가 거대 양당의 독식으로 정치개혁 무산’되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일었던 한 주였다. KBS부산 <기초의원 선거구 또 ‘쪼개기’…진보정당 “정치적 폭거”>(4/27)와 부산MBC <기초의회 선거구 늘장 획정, 쪼개기 논란>(4/27)에서 중대선거구제 확대 무산으로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입 가능성 희박,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기회가 또 늦춰진다는 소수정당의 의견에 주목하며 선거개혁 후퇴를 지적했다. 다만 ‘거대양당’과 ‘소수정당’ 간의 의회 자리싸움으로 비춰지지 않게 중대선거구제 확대 의미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짚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다.

5월 2주 이후 보도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기획보도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후보의 행보를 좇는 보도와 1호 공약, 선거 유세에서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의 ‘정책 나열’ 보도가 많아 ‘공약 검증’보다는 ‘공약 받아쓰기’에만 그쳤다. 또한 이 시기에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각 지역구의 후보가 확정되어 선거구도에 집중하는 보도가 많았다. <16개 구군 단체장 선거 대진표 확정>(부산MBC, 5/8), <우리 동네 일꾼은?...‘격전지’ 남구·부산진구>(KBS부산, 5/11), <부산 부산진구청장 4년 만에 재격돌>(KNN, 5/11), <‘재선 도전 vs 정치신인’ 부산 북구청장 맞대결>(KNN, 5/13), <보수 텃밭 부산 서구, 4년 만에 재격돌>(KNN, 5/14) 등은 각 지역의 후보자 소개 및 공약과 선거구도에 따른 전략을 전했다. 대부분 현역 구청장들이 연임을 노리는 민주당과 구청장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수성’, ‘탈환’과 같은 대결구도를 강조하는 모양새였다.

선거행보 보도의 대부분은 후보들의 유세 장소, 발언 내용, 운동원들의 유세 장면 등으로 이루어진 거의 같은 구성의 보도였다. 유세 현장에서의 후보 연설 내용도 여과없이 그대로 전달했지만 그 발언을 검증하는 보도는 드물었다. 또 단순 행보, 공약나열 보도에서 후보들의 선거전략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는 내용이 같이 언급되어 행보-공약, 행보-전략, 전략-판세분석 등으로 중복 체크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정책-공약 기사도 행보나 선거 전략에 따른 나열수준으로 공약 검증이나 분석은 부족했다. 다만 선거일이 가까워지는 5월 4주, 5주에는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거나 팩트체크하는 기획보도가 증가하긴 했지만 공론화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었다.

선거가 경마나 축구 경기가 아니듯이, 선거보도에서 언론도 중계자의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지만 후보들의 발언과 공약을 분석·해설하고 관련 전문가나 정책 당사자의 정책 효능감을 짚어주는 역할에는 소홀했다.

지방선거 선거별·정당별 보도, 시장·기초단체장·거대 양당에만 집중 비례대표 선택 위한 군소정당 보도 여전히 부족

선거 구분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광역단체장	22	25	22	69
교육감	19	9	9	37
기초단체장	24	11	18	53
광역의원	5	2	1	8
기초의원	1	5	7	7

△ <표 3> 선거별 기사 건수(*중복 집계)

선거별 보도 건수는 부산시장 관련 보도가 69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부산시장 선거 보도는 후보 행보와 단순 정책소개가 보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다가, 선거 후반에 가서야 검증보도 건수가 증가했다. 시장 보도 다음으로 기초단체장 보도 53건, 교육감 선거보도 37건 순으로 나타났다.

보도 날짜	방송사	제목	보도유형
4월 29일	KNN	'직군도 다양' 지방선거 이색 후보들	리포트
5월 12일	부산MBC	기초의원 무용론? 오히려 더 잘 뽑아야!	기획보도
5월 13일	부산MBC	부산 첫 4인 선거구 '기장군 다'	기획보도
5월 14일	부산MBC	쪼개기 혼란 속 치열한 선거전	기획보도
5월 14일	부산MBC	부산 구의원 후보 33명 투표없이 당선 확정	단신
5월 17일	부산MBC	여성·청년 후보 부족, 개혁공천 헛구호	기획보도
5월 23일	KBS부산	지방선거에 나선 2030 '젊치인'...활약 주목	리포트

△ <표 4> 지방선거 '기초의원' 보도 리스트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보도는 각각 8건, 7건이었는데, 특정 후보를 소개하기 보다는 지방선거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나 이색후보를 소개하는 보도에 한정되었다. 대체적으로 시장후보에게만 집중하고,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에 지역방송은 소홀한 모양새였다.

기초단체장 보도의 경우, 대부분의 보도가 해당지역에서의 공약의 필요성이나 가능성 등 정책 분석·평가보다 선거구도에 대한 후보들의 전략을 소개하는 것에 집중했다. ‘수성’, ‘탈환’, ‘재격돌’, ‘격전지’ 등 전쟁 용어를 남발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선거의 ‘승패’에만 주목하게 했다. 특히 KBS부산과 KNN의 기초단체장 보도는 후보등록 이후, 권역별 후보와 주요공약, 선거구도에 대해 1차적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 이외에 선거공보물과 같은 정보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해 아쉬웠다.

정당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더불어민주당	5	5	3	13
국민의힘	8	5	12	25
정의당(진보정당 연대)	2(1)	2(2)	2	6(3)
민주+국힘	22	14	19	55
민주+국힘+정의	24	22	13	59

△ <표 5> 정당별 보도 건수(*중복 집계)

정당별 보도 건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이 함께 등장하는 보도가 59건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부산시장 후보 선거 보도에서 3명의 후보를 모두 언급한 경우가 해당된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동반 보도가 55건으로 뒤를 이었는데, 기초단체장 후보를 소개하는 보도에서 양당이 함께 언급된 경우이다. 특히 정당별 단독보도에서 국민의힘 보도가 25건으로 가장 많은데, 지역방송이 공천·경선 시기에 국민의힘 갈등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3건, 정의당과 진보정당 연대는 9건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는 시장, 구·군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시의회와 구·군의회의 비례대표를 뽑기 위한 지지 정당 투표도 있다. 특히 시의회 비례대표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한류연합당 6개 정당이 후보를 냈다. 하지만 지역방송은 부산시장 후보가 출마한 정당만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비례투표 대상인 군소정당에 대한 보도는 심각할 정도로 찾아보기 힘들었다. 시장이나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후보가 없는 정당이라도,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비례 투표 대상이 되는 정당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전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은 소홀했다.

선거보도에서 빠지지 않는 판세 보도와 여론조사 보도
‘정책 투표’보다 ‘정당 중심 투표’ 유도하여 오히려 정책선거 저해

보도내용		KBS부산	부산MBC	KNN	합계
공약·정책 단순 전달		20	17	23	37
검증보도	공약·정책	3	5	0	17
	후보	6	3	0	
행보/동정		26	20	22	68
판세(전략·구도분석)		16	18	20	54
여론조사(결과전달/분석)		6(5/1)	4(3/1)	0	10(8/2)
선거 사무		13	10	7	23
후보 소개(약력 등)		10	7	11	17
유권자 활동(정책제안 등)		0	4	3	7
선거제도의 의미 및 문제점		7	17	2	26
선거관련 사건·사고		4	4	4	12

△ <표 6> 보도내용별 건수(*중복 집계)

보도내용별로는 후보와 정당의 행보·동정 보도가 68건, 각 정당의 선거전략과 후보 구도를 통해 판세 유불리는 따져보는 판세보도가 54건이었다. 선거시기에 빠지지 않고 많이 등장하는 보도가 후보 행보와 판세보도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후보의 발언과 등장 장소만 좇는 특별히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보 보도’와 유권자의 성향을 제멋대로 예단하면서 ‘정책’ 보다는 ‘정당’ 중심의 투표를 유도하는 판세보도가 과연 선거보도에서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성찰이 필요할 듯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0건에 불과했지만 여론조사 보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후보지지율과 ‘승패’에만 집중하여, 지지율을 단순 나열한 기존의 경마식 보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특히 중요 지역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는 각 후보의 주요 공약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정책이 꼽힐 수밖에 없는 질문지의 한계를 보였다.

판세분석보도는 ‘분석’이라는 그럴듯한 ‘객관적’ 표현이 붙지만, 따지고 보면 후보들의 당락을 ‘주관적’으로 예측하는 일이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 필요한 것은 ‘내가 사는 동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내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이다. 하지만 후보들의 당락을 점치는 판세보도는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 중앙정치와 연결하는 ‘정당 중심 투표’가 아닌 진정한 ‘정책 중심 투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언론과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약·정책을 단순 전달한 보도가 37건, 선거제도의 의미와 문제점을 짚은 보도 26건, 선거일정 및 선거 독려 등의 선거사무 보도가 23건이었다. 그리고 후보 의혹 및 공약·정책을 팩트체

크하거나 검증하는 보도는 17건으로 <표 7>과 같다. KBS부산이 9건, 부산MBC가 8건으로 후보에 대해 불거진 의혹과 성과, 정책 실현 가능성을 짚어보고 검증한 보도로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보도 날짜	방송사	제목	보도유형
5월 02일	KBS부산	부산시교육감 선거, 불법선거 신고...과열 조짐	리포트
5월 16일	부산MBC	윤창호사건 '이후에도...'음주운전' 무더기 "공천"	리포트
5월 17일	KBS부산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 출장지 이탈·도박 논란	리포트
5월 18일	KBS부산	불거진 도박 논란... '송곳검증' 어디 갔나?	리포트
5월 22일	KBS부산	선관위에 하윤수 부산교육감후보 허위 학력신고	단신
5월 23일	부산MBC	부산시장 후보 3명의 '말 말 말'... 팩트는?	기획
5월 24일	KBS부산	[부산 공약 검증K] 시장 후보에게 묻다...민생 경제 해법은?	리포트
5월 24일	부산MBC	"원전 이슈" 부산시장 후보 3명의 답은?	기획
5월 25일	KBS부산	[부산 공약 검증K] 시장 후보에게 묻다...사회 복지 정책은?	리포트
5월 25일	부산MBC	같은 듯 다른' 2029년 신공항 개항론	기획보도
5월 26일	KBS부산	[부산 공약 검증K] 시장 후보에게 묻다...생활 속 공약은?	리포트
5월 30일	KBS부산	민주당 현역 부산시의원, 예비후보 때 음주운전 적발	단신
5월 30일	부산MBC	"지하차도 참사, 엘시티, 전과"...해명은?	리포트
5월 30일	부산MBC	D-2, 지지세 결집 총력전	기획보도
5월 30일	부산MBC	예비후보 상태로 음주운전...출마자 13% 음주전과	리포트
5월 31일	KBS부산	부산 기초단체장·광역의원 후보 24% 음주운전 등 전과	단신
5월 31일	부산MBC	8대 지선 숨가뻐던 85일... 유권자의 선택은?	리포트

△ <표 7> 후보 의혹 및 공약 검증 보도 목록

KBS부산은 <부산시교육감 선거, 불법선거 신고...과열 조짐>(5/2), <[부산 공약 검증K] 시장 후보에게 묻다>(5/24, 5/25, 5/26) 등을 통해 교육감 후보의 공방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장 후보의 공약을 비교, 선거보도 자문단의 평가를 담았다. 하지만 공약자문단 평가가 각 후보별 공약 실현가능성 점검 등의 구체적인 분석보다 '공약 한 줄 평' 수준에 머무는 한계를 보였다.

부산MBC는 <부산시장 후보 3명 '말 말 말'...팩트는?>(5/23), <"원전 이슈" 부산시장 후보 3명이 답은?>(5/24), <같은 듯 다른' 2029년 신공항 개항론>(5/25), <"지하차도 참사, 엘시티, 전과"...해명은?>(5/30) 등을 통해 부산시장 후보들의 1호 공약, 주요 지역 이슈에 대한 입장, 논란이 되고 개인의 약점과 해결책 등을 짚었다. 후보들의 공약집과 유세장 발언을 직접 취재하고, 후보에게 재 질문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공약의 실현가능성, 성과 진실 여부 등을 알려주어 유권자의 판단

에 도움을 준 좋은 검증보도로 평가된다. KNN은 검증보도가 단 한건도 없었다.

선거시기 균형보도?

후보자 간 균형보다 후보자와 유권자 보도 균형 우선해야

유권자 관련 보도 턱없이 부족

선거시기 계층별, 연령별, 직업별, 지역별로 유권자의 표심을 분석하는 보도는 쏟아지지만, 막상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보도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였다. 보도내용별 보도에서 유권자와 관련된 보도는 전체 모니터기간 동안 7건에 불과했다. 7건 중 <고 3도 뽑는 첫 교육감, 원하는 정책은?>(KNN, 5/23), <학생·교직원, "이런 교육감 바란다">(부산MBC, 5/24)을 제외한 5건은 단신이었다. 심지어 KBS부산은 유권자 관련보도가 0건이다.

보도 날짜	방송사	제목	보도유형
4월 25일	부산MBC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촉구 기자회견	단신
4월 28일	부산MBC	부산 4개 정당과 민주노총 "노동중심"정책협약	단신
5월 17일	부산MBC	지방선거 불랑후보자 퇴출 시민운동결의	단신
5월 19일	KNN	부산시장 후보 정책담당자 토론회	단신
5월 20일	KNN	시민정책 의제 후보자 정책공약으로 채택 요구	단신
5월 23일	KNN	고 3도 뽑는 첫 교육감, 원하는 정책은?	리포트
5월 24일	부산MBC	학생·교직원, "이런 교육감 바란다"	기획보도

△ <표 6> 유권자 관련 보도 건수(*중복 집계)

지방선거 기간 지역에서 현안별 정책제안, 공약 검증 등 유권자 행동이 활발하게 진행했지만, 지역 방송은 대부분 단신으로 보도하거나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보도에서 유권자가 자주 언급된 사례는 보도의 말미에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었다. 후보의 이력, 의혹, 정책 등을 나열하고 보도의 결론으로 ‘철저한 감시와 냉철한 판단’을 유권자의 몫으로 남긴 것이다. 검증 취재를 통해 유권자가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공보물 이상의 정보를 적어도 언론이 먼저 제시하고, 그 이후 유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남겨야 할 것이다.

후보자의 출마의 변이나 공약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유권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제안하는지 주목하여 공론화하는 것도 지역언론이 지방선거에서 주요하게 해야 할 역할이다. 또한 부산의 지역 현안에 대한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지역 전문가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역 밀착형보도, 다시 말해 유권자 의제로의 확장도 필요하다. 이른바 ‘불공정한 뉴스’는 의도적 이슈의 누락 또는 축소도 있지만 해당 이슈의 이해당사자들의 적절한 균형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이에 해당된다. 정책과 공약의 대상이 되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제와 관점의 다양성을 누

락시킨 것이다.

선거보도에서 후보자 간 보도를 얼마나 균형감 있게 보도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후보자와 유권자의 보도도 균형감 있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선거의 주인공은 후보자가 아니라 유권자가 아닌가. 선거의 진정한 주인공인 유권자의 발언과 요구를 더욱 과감하고 깊이 있게 다루어주길 지역방송에 당부한다.

장애인의 알권리 및 투표 접근성 높이기 위한 정보 부족

장애인의 시청권 보장을 위한 장치로 지역방송도 뉴스에서 수어통역방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정보는 지역 언론을 통해 주요하게 보도되기 때문에 장애인 유권자에 꼭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부산MBC, KNN 주말뉴스에서는 수어통역방송을 진행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주말에도 여전히 선거보도는 방송이 되지만 청각장애인은 편집된 자막을 통해서만 선거정보를 접해야만 했다.

선거방송토론회에서도 수어통역사 1인이 모든 후보자의 발언을 통역하고 있었다. 여러 사람의 대화에서 수어통역이 한 명이다 보니 누구의 말을 전달하고 있는지 구분이 힘들어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과 알권리가 훼손되고 있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에서 최초로 '1:1 수어 중계 선거방송 토론회'를 진행한 것처럼, 부산지역의 언론단체와 유관기관, 지역방송사의 협업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안 마련이 필요할 듯하다.

또한 이동 약자를 위한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를 지역언론이 적극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점 또한 아쉽다.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였지만 KNN만 <거소투표 내일부터 14일까지 신고해야>(5/9) 단신으로 전달했다.

한편 KBS부산과 KNN은 매 선거마다 지적되는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개선의 문제를 보도하기도 했다. <“영터리 음성 인식”...장애인 참정권 ‘먼 얘기’>(KBS부산, 5/30)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27조에 의거 '장애인 참정권 행사를 보조하기 위해 국가가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 장애인 위한 점자 공보물 의무화가 되지 않는 상황과 장애인이 실제 겪는 불편함을 취재를 통해 짚었다. 또 <장애인 참정권, "아직 멀었다">(KNN, 5/30)는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장애인들의 상황을 다방면으로 조명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주어져야 할 투표권이 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차별로 다가오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보도로 평가된다. 다만 선거 막바지가 아닌 선거공보물이 제작되기 전이나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보도하여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다.

지방선거 의미 부각하고 선거제도 사각지대, 부실관리 지적하여 지방선거보도에서 단연 돋보인 부산MBC

이번 지방선거보도에서 부산MBC는 지방선거의 의미를 부각하고 선거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보도와 후보의 공약과 말을 검증한 기획보도를 이어가 지역 유권자에게 유용한 선거정보를 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도날짜	보도 제목	보도주제
5/3	지방선거 비례대표 경쟁도 치열	비례대표제 의미
5/4	지방선거 후보자 전과 이력 봤더니...	후보자 전과문제
5/9	저조한 투표율 심각, 소중한 한 표의 가치	지방선거 의미
5/10	임기 못 채운 단체장 11명... 198만표 증발	지방선거 의미
5/11	부산시의원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는?	지방선거 의미
5/12	기초의원 무용론? 오히려 더 잘 뽑아야!	지방선거 의미
5/16	윤창호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 무더기 "공천"	후보자 전과문제
5/17	여성·청년 후보 부족, 개혁공천 헛구호	공천배제
5/20	부산 무투표 당선 35명..3.5배 증가	무투표 문제
5/23	부산시장 후보 3명의 '말 말 말'... 팩트는?	후보·공약 검증
5/24	"원전 이슈" 부산시장 후보 3명의 답은?	공약 비교·분석
5/24	학생*교직원, "이런 교육감 바란다"	유권자 제안
5/25	MZ세대가 묻는다, 변성완 후보 청문회	청년이 묻는 인터뷰
5/25	같은 듯 다른' 2029년 신공항 개항론	공약 비교·분석
5/26	선거공약서' 실종... 선관위는 '엉뚱한 답변'	선거공약서 불이행
5/26	MZ세대가 묻는다, 박형준 후보 청문회	청년이 묻는 인터뷰
5/29	MZ세대가 묻는다, 김영진 후보 청문회	청년이 묻는 인터뷰
5/30	"지하차도 참사, 엘시티, 전과"... 해명은?	후보·공약 검증
5/30	예비후보 상태로 음주운전... 출마자 13% 음주 전과	후보자 전과문제

△ <표 7> 부산MBC 주요 기획보도 목록

특히 시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역할과 이들이 움직이는 예산을 설명하며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표의 가치’를 환기시켰다. 또한 후보자들의 전과와 정당의 공천시스템, 무투표 선거, 선거공약서 불이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유권자들이 놓치기 쉽거나 잘 알기 못했던 내용을 전했다. 물론 행보와 공약 나열 위주의 보도도 있었지만, 후보의 발언과 주요 공약을 검증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다만 유권자 활동이나 유권자 정책제안에 대한 보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단신’으로만 전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당, 정치인에 집중된 취재원에서 벗어나 유권자의 목소리를 더 많이 전하는 기획을 다음 선거에서는 기대한다.

지방선거 기획 소극적...지역 대표 공영방송 역할 못한 KBS부산 넓은 권역의 선거 소개로 보도량 많았지만 심층성 부족했던 KNN

KBS부산은 지역 대표 공영방송으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역할을 다 했는지 성찰해야 할 듯하다. KBS부산은 지역뉴스를 전하는 메인뉴스 <뉴스 9> 외에도 자체 편성권을 갖고있는 <뉴스 7>이 있어 타 방송사에 비해 지방선거 보도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뉴스 7>의 '대담한K'와 '키워드 이슈', <뉴스 9>의 지방선거 관련 단신 뉴스를 빼고는 거의 모든 지방선거 보도가 '재방송'되고 있었다. 지방선거보도가 KBS부산의 주요 뉴스 시간을 통해 거의 똑같이 편성되어 지역민은 2시간의 차이를 두고 '재방송' 같은 선거보도를 봐야만 했다.

이번 지방선거 기간 KBS부산의 선거보도 기획인 <우리동네 일꾼은?>, <부산 공약 검증K>, <대담한 K>로 이전 선거와 다르지 않았고, 새로운 기획은 선보이지 않아 소극적인 선거기획보도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 5월 12일 <뉴스 7> 편성시간에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를 내보내어(2022 지방선거보도 민연련감시단 공동성명 참조, <http://bssiminnet.or.kr/origin/post/9850>),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역민에게 다양한 선거정보를 전달하고 후보와 공약의 검증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기에 지역의 대표 공영방송인 KBS부산이 타 방송사와 차별화된 선거보도를 하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KNN은 부산과 경남권역의 지방선거를 보도해야 했기에 보도량은 많았지만, 후보와 공약을 단순 소개하는 수준에 그쳐 심층적인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보도는 드물었다. 기획보도가 많지 않은 가운데, <[현장 연결] 부산시장 후보 캠프>(5/25, 5/26, 5/27) 기획보도는 부산시장 후보 선거캠프를 현장 연결해 3명의 후보와의 인터뷰를 생중계하였다. 시민의 반응과 후보가 생각하는 강점, 주요 공약에 대한 질문과 답이 오고갔다. 하지만 부산시장 후보를 유세현장이나 스튜디오가 아닌 캠프 사무실에서 생중계로 만난다는 특이점 이외에 유권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부족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제도를 유지시킨 2인 선거구제 중심의 선거구 획정문제나, 유권자 선택권을 침해한 무투표 당선자 양산 등 선거제도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

언론의 2022년 6월 지방선거 보도가 던지는 단상

강주현 부산대 연구교수

.....

#1. 선거가 와 닿지 않는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 선거. 그런데 선거가 와닿지 않고 후보자가 누구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음. 꼭 투표장 가야 해? 이렇게 망설일 때 또 다른 한 쪽에서는 “투표하러 가야해!”라고 독려하는 목소리~ 어떤 목소리들이 있었을까? 예전에는 SNS 등에서 투표 인증 열풍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선거에는 잘 못 느낌.

네이버에서 ‘부산 투표 참여’를 검색. 일단 선거 당일에 투표율~ 실시간으로 자세히 참 많이도 올라옴~ 선거 끝난 후에도~ 그런데 이거 선거 전에 볼 수 없을까? 왜 투표장에 가야 하는지? 5월 26일 뉴시스의 “부산교육감 선거 후보들, 사전투표 참여 호소” 5월 31일 세계일보의 “여야 부산시장 후보, 투표참여 독려” 보임. 부산일보 5월 31일 세 후보의 호소가 제목으로 올라 왔음. “진정한 부산 사람” “압도적 지지 필요” “서민이 행복하게”

KBS 부산은 5월 26일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꼭 투표하세요”라는 뉴스를 통해 사전 점검 내용 전함. 부산 MBC는 “6.1 지방선거, 투표는 이렇게!”라는 뉴스에서 현장의 투표 과정을 직접 시연하며 상세하게 투표 방법 안내. 부산일보는 5월 31일 “투표 방법과 주의할 점”을 소개. 한편 부산 MBC 5월 9일 “저조한 투표율 심각, 소중한 한 표의 가치” 뉴스에서는 2명의 기자님과 1명의 교수님이 등장해 한 표의 가치에 대해 열변.

#2. 후보자들이 누가 누가 있지?

우리 동네 누가 출마했는지를 잘 모르겠다. 물론 후보자들은 열심히 자신을 알리며 선거 운동을 했겠지만~ 공보물과 벽보 등을 통해 후보자가 누가 있는지 알렸지만~ 공보물은 각종 고지서처럼 봉투채로 테이블 위에 있고, 밤에 퇴근하다 보면 벽보도 안 보임~ 주말에 후보자들은 열심히 확성기로 자신들을 알리지만 시끄러워 문 쿡~ 이 때 부담 없이 우리 동네 누가누가 출마했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뉴스를 보면 부산시장 후보자, 교육감 후보자들은 자주 나옴. 이름은 다 기억 못 해도 얼굴 한 번 이상은 지나갔을 듯. 그런데 구청장 후보는? 시의원 후보는? 구의원 후보는? 물론 투표지 7장이면

곱하기 몇 명 하고 각 지역 곱하면 언론에 지역의 모든 후보들을 다루기란 불가능.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고민. 이 때 종이 신문 혹은 방송에 모든 후보들을 다룰 수 없을 때 유튜브 홈페이지 등에 소개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한편 허경영 후보의 대선 TV토론 외침? “우리도 똑같이 돈 냈어! 왜 차별하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닌데? 혹시나 양당 후보에 가려져 똑같이 돈 냈는데 언급 안된 후보들은 없었을까?

#3. 후보자들은 문제가 없을까?

이 후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음.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과거에 범죄나 큰 잘못은 없었는지, 공적인 일을 하기에 적당한 사람인지, 왜 선거에 출마했는지 말하기보다 젓밥에만 더 관심이 크지 않은지 그런 점이 유권자는 궁금할 수 있음. 선거 후보자와 관련하여 여러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언론은 의외로 공정함과 균형 보도를 통해 이런 부분을 피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 선거법의 문제도 있고, 선거 전 중립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가능할 듯. 또한 언론이 모든 후보자들을 검증하기란 불가능하고 언론에서 모두 다루기도 어려움.

선거 시기 의혹 검증 보도는 양면성이 있을 듯. 후보자에게 큰 문제점이 있다면 선택을 앞둔 유권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보도. 후보자들의 반론도 동시에 제시할 수 있고 판단은 유권자가 하면 됨.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자가 꽤 높은 비중으로 음주 운전 등의 전과 기록이 있다는 뉴스도 있었음.

다만 선거 직전에 제기되는 의혹은 검증이 어려울 수도 있고, 중대 사안이 아니라면 선거 끝나고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음. 그래서 좀 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앞서 하거나, 선거 전에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주요 후보는 언론이 선거 끝난 후 팩트체크를 거친 후 검증할 수도 있을 듯.

#4.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들 정책은?

덜컥 누가 당선이 되었는데 무슨 무슨 정책을 한다고 함? 그런데 저거 동의한 적 없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냐? 뭐라고요? 이미 공약으로 다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몰랐지? 아하~ 이 후보 이리이러한 정책 있다고 들은 적 있었는데~ 그 정책이 바로 이거야? 이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아닌걸? 이거 좀 따져봐야 하지 않나?

후보자들 정책은 뭐가 뭐가 있다는 사실 좋은 이야기들뿐이라 잘 모르겠음. 그런데 부산 시장이나 부산 교육감이 누가 될 때 어떤 정책을 선택하게 되고 이 정책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전문가 의견에 빌어 말할 수 있을 듯. 하지만 그런 보도를 크게 못 느꼈음. 선거 이후라도 그런 정책들을 찾아 공론의 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

부산 MBC의 MZ세대가 부산시장에게 묻는다 뉴스는 완성도가 아쉽기는 했지만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에 특화된 정책 질문으로 신선한 시도였다고 생각.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시장 후보들 정책들 보면 크게 차이점도 모르겠고, 미사여구가 가득한데 청년이 청년세대 공약을 질문하니 각 후보들의 당황한 기색들이 나타남. 가덕 신공항, 엑스포에 대한 고민과 답변은 수도 없이 했을지 몰라도 청년 세대에 대한 고민과 답변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방증. 이처럼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각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질문을 던지는 기회가 많으면 좋겠음.

우리가 만들어 가는 세상, 그 안에서의 역할

권보영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공익컨텐츠 서포터즈

안녕하세요, 동의대학교 광고홍보학과 3학년 권보영입니다.

저는 이번 2022 지방 선거 언론 보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카드 뉴스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언론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도 아니었고, 기사문을 접하더라도 이것을 심층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많지 않았습니. 또 언론을 접하더라도 경제와 생활 뉴스 외에는 관심이 있게 찾아보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근데 이번 공익캠페인 카드 뉴스 제작단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와 관련한 보도들을 다양하게 접해보고 그것을 또 심층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카드 뉴스 제작을 하면서 2022 지방 선거 언론 보도에 대해 들었던 생각은.....

1. 유권자를 위한 언론보도?

모니터링과 카드 뉴스를 제작하면서 제일 많이 언급되었던 내용이자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을 위해 보도되어야 할 상황에서 유권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 또 한 보도에서는 시청률을 위해 부산과 상관없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송출 보도까지 이루어 졌습니다. 유권자에게 우리 지역의 후보자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급한 시기에 지역과 상관없는 보도로 오히려 부산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더욱 떨어트리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방선거에 있어 당연히 시장 후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광역의원과 기초 의원들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그에 대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권자들과 관련한 보도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유권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어 이에 따라 지역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인데 이러한 점들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으며 언론, 방송사들은 유권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한 보도, 그들의 목소리가 깃든 보도들이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 획일화된 선거 보도

갈등을 부각한 보도, 구도·승패만을 내세운 보도, 각 후보자의 행보에 초점이 맞춰진 보도 등을 주로 부각하여 유권자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이 다양하고 올바른 정보로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방송사에서 원하는 선거 보도는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후보자 공약이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의견, 공천 과정에서의 비판적인

시각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선거 보도들을 통해 후보자와 그에 대한 공약을 알아가고 이에 맞춰 조금 더 올바른 후보자들에게 나의 소중한 한 표를 던질 기회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 방송사들은 이제껏 해오던 선거 보도에서 벗어나 좀 더 구체화되고 정보의 다양성이 넘치며 유권자들이 확실히 알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보도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3. 국민 모두의 알권리?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로 누구 하나 소외 받아서는 안 되고 모든 권리가 동등하게 작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보도에서도 소외당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유권자들은 수어 통역 방송 등의 각 장애인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정보 제공이 필요한데 이 점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 카드 뉴스 제작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유권자분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친절하고 더 다양하고 더 배려심이 깃든 정보들이 필요한데 언론사들은 이러한 선거 보도가 매우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초로 1:1 수어 중계 선거방송 토론회가 진행된 것처럼 부산 지역의 언론, 방송사들도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선거 보도에 대한 정보전달 문제점도 있겠지만, 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함에서도 불편한 점들을 언론, 방송사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들이 공론화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환경까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 개인들은 적응하며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는데 바쁜 삶을 보냅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이 속에서 언론, 방송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임은 틀림없습니다. 우리들의 온전한 투표권을 발휘하기 위해 다양하고 질 좋은 보도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청년유권자 활동가가 바라본 2022년 지방선거 보도

김민지 (사)부산청년들 이사

.....

1. 부산청년유권자행동 활동 내용

- 부산청년유권자행동은 제8회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자가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요구하고, 청년 공약을 검증하는 등 청년문제 해결을 희망하는 청년(단체)가 함께하는 연대체임. 2018년 지방선거,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이번 선거까지 총 세 번의 선거에서 유권자 활동을 조직함.

-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역대 부산시장이 후보자 시절에 언급한 청년공약 평가 (2)청년 삶 회복을 위한 지방선거 대응 기자회견 (3)부산2030후보자 지도 제작 (4)부산시장 후보자 대상 청년정책 공개질의서 발송/답변 공개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음.

- 부산청년유권자행동은 청년 정책이 과거관점, 공급자 중심주의에 머물러 있고, 청년을 호명하지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에 충분한 자원을 분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음. 따라서 이번 공개질의서 발송에서 부산청년유권자행동은 후보자들에게 향후 청년정책 형성에 필요한 관점으로 ▲청년정책으로 목적이 분명한 사업의 청년공약 ▲취업률 등 결과적 지표만 존재하는 사업이 아닌, 결과와 상관없이 참여과정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도록 청년공약 ▲계획, 실행, 평가되는 전반에 청년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추진구조를 포함한 청년공약 ▲현재를 살고 있는 청년의 삶에 연결이 되도록 하는 청년공약 등을 요구하였음.

- 이번 선거기간 활동에 대한 보도 현황은 헬로TV, 부산제일경제, news1, 부산MBC, 오마이뉴스, 동아일보 등 6개 매체가 기자회견에 대해 보도하였음. 2차 보도자료가 정책 질의서를 바탕으로 작성 및 발송되었으나 보도되지 않았음. 한편,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의 경우 이번 활동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22년 청년유권자행동 활동기록(링크) : <https://bit.ly/2022byele0>

2. 청년분야 유권자 활동가로서 지방선거보도 총평

▶ 더 활발한 유권자 활동의 조직과 참여민주주의 실현에 힘 신는 지역 언론이 되기를

유권자 활동에 있어 언론 보도량이 그 가치를 측정하는 데 1순위 지표인 것은 아니지만, 유권자들의 정책 제안이 후보자와 당선인에게 유의미하게 검토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협력이 중요함. 공허한 기획보다 지역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의 문제를 잘 청취하고 그로부터 시작하는 선거 보도가 필요함.

▶ 당사자·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분야별 현안에 대한 유익한 보도와 기획 필요

이번 선거 보도, 특히 인터뷰 기획에서는 엑스포 유치, 산업은행 이전 문제 등 후보자 공약 중 일 부만이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음. 청년, 노동, 여성, 환경 등 다른 지역 문제에 대한 공약 질의나 검증은 없었는데, 그러면서도 각 분야에 대한 유권자활동에 대한 보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의아한 지점임. 특정 단체의 활동을 다루는 데 리스크가 있다면 당사자나 시민사회의 의제 단체와 연대하여 그 분야 공약을 다루는 기획을 통해, 거대 담론 이외에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문제를 두루 살피는 보도가 필요. 그런 점에서 국제신문의 '시민패널단에 듣는다 <1> 부산 시장 후보 청년정책 분석' 기사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선거 보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됨.

▶ 지방선거 기간에만 부산시민이 되는 유권자, 그러나 선거철에도 부산시민이 되지 못했던 이번 선거

이번 지방선거는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지역 시민의 삶을 살피고, 심화되고 있는 지역 격차를 현명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일꾼을 뽑아야 하는 중요한 기간이었음. 그러나 이 시기를 후보자들과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마치 대통령 선거에 딸린 '미니 선거'처럼 보낸 것 같은 데 아쉬움이 남음. 특히 대선 이후 다소 사그라든 시민들의 관심을 언론이 적절한 기획과 보도를 통해 살리기보다 '선거 분위기가 안나다'며 현상을 관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각 매체에서 지방선거가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보도를 여러차례 했음에도, 그 자신은 정책선거를 촉진하는 데 적절한 보도와 기획을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 있었으면 함. 한편, 부산청년유권자행동 활동을 포함해 선거기간이나 그 기간 외에 이루어지는 유권자-시민활동들이 기존 언론의 보도에 의존해야 하는 점에서 계속해서 한계를 느끼고 있음. 유권자의 활동들이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풍부하게 담길 수 있는 자체 시민 언론 플랫폼이나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함.

기초의원 선거 후보가 짚어본 부산지역 2022 지방선거 보도

노정현 제8회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 진보당 후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은 사회이슈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공론장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민주주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역할 또한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재민, 만민평등의 기본 가치가 올바르게 실현되고 있는지 꾸준히 점검하고 긴장감 있게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역 언론은 지나치게 자신의 역할을 협의의 틀에 가두어두고 있다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32년이라는 지방자치 역사를 무색케하는 심각한 기록을 남기며 끝이 났습니다. 전국 50.9%, 부산 49.1%라는 저조한 투표율에 4,000여명의 공직자 중 509명이 무투표로 당선되는 사태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위기의 주요한 요인은 거대양당이 독점하는 현 정치구조입니다. 여기에 양당을 견제해야 할 진보정당의 약화라는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양당 독점으로 민의가 왜곡되고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과연 지역언론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하자면, 상황에 대한 진단은 하였으나 그에 맞는 처방에는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광역우선, 메이저 후보-정당 중심의 보도 구조를 깨뜨리려는 시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방송에 시청률 잘 나오는 인기예능뿐만 아니라 시사교양, 다큐, 뉴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듯, 언론보도도 거대양당, 유력후보를 넘어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의 선거 보도는 마치 하루종일 예능만 보여주는 예능채널처럼 철저히 광역우선, 메이저 후보-정당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모두 똑같이 기탁금을 내고 같은 후보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비메이저 후보들은 언론조명에서 철저히 배제됩니다. 막대한 정당보조금과 선거비용보전의 차이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렵게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은 메이저 후보 중심의 선거 보도 앞에서 넘사벽의 격차를 느끼며 좌절합니다. 특히 가장 관심도가 높은 후보자토론회에는 참여 대상에 들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역급의

선거는 득권 양당 소속이 아니고서는 출마 자체를 포기해버리기 일쑤입니다. 기초 선거는 거의 편성조차 되지 않으니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선관위 규정 자체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언론이 규정 내에서 의무방어전 치르듯 소극적으로 대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탓도 있습니다. 가령, 가장 황금시간대에 다양한 후보들이 출마한 기초의원 지역구를 선정해 풀뿌리 민주주의의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주제로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기획해보면 어떨겠습니까. 조금 서툴고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의외로 참신성과 화제성으로 지역정치와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모든 후보가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도록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하고 규정개정이 필요하다면 이슈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유권자 중심이 아닌 구도 중심의 보도 관행을 탈피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18년 지방선거의 성격을 ‘대선의 2차전’,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라는 등 중앙정치 대리전 같은 보도 양태를 보였는데, 이번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산민언련 보고서에 나왔듯 지역뉴스 편성시간대에 ‘경기도지사 토론회’를 내보낸다거나 지역쟁점을 발굴하는 대신 ‘격전지 탈환 vs 수상’처럼 양당 대결에만 집중하는 보도, 중앙정치인의 행보 및 양당 대결을 받아쓰듯 하는 구도 중심의 보도관행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구경꾼으로 전락시키고 아래로부터 시도되고 있는 다양한 정치변화의 노력들을 뒤덮어버려 결국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역보도 시간에는 중앙정치 보도 배제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어진 시간에 가령, 지역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 만민공동회, 대토론회 등을 기획하여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대통령도 그릇된 정치를 하면 국민이 직접 끌어내리는 시대에 대리정치시대의 산물인 후보, 구도 중심의 보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착한 사람들에게’에 이런 가사가 등장합니다.

“아직 부족해서라는 말은 말아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말은 말아요. 그건 완벽한 부모가 되기 전에 아기는 갖지도 낳지도 말란 말과 똑같잖아요”

소수정당과 정치신인들에게 먼저 눈을 돌리는,
부족함보다 가능성에, 현재보다 미래에 투자하는,
낡은 제도,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는
지역언론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지방선거 보도 평가 집담회 : 유권자와 함께 훑아보는 '2022 지방선거 보도' 토론자료

민성빈 부산MBC 정치담당 기자

1. 부산MBC 정치 및 선거 보도 인원 현황

평상시	6.1 지방선거(5월 1일부터)
·편집제작부 4명 (시사프로그램 제작) ·사회부 9명 (시청, 교육청, 경찰 등 출입) ·정경팀 5명 (정치담당 1명, 경제, 양산 등 출입)	·정경팀 2명, 사회부 1명 선거T/F 구성 - 민성빈, 박준오, 송광모 기자 ·기타 업무 분배 - 교육감 선거 취재 : 교육청 담당기자 - 구청장 격전지 소개 : 사회부 경찰팀 - 양산지역 선거 : 양산시 출입기자 - 토론회 및 개표방송 : 편집제작부

2. 부산MBC 보도국 선거T/F 운영 방안

·운영인원 및 기한

- 민성빈, 송광모 기자 : 주차별 기획보도 취재 및 제작
- 박준오 기자 : 일정 중심 데일리 리포트 취재 및 제작
-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운영 후 해산

·기획보도 방향

- 후보/공약 나열, 단순 판세 분석 등 기존의 보도 관행 지향
- 유권자의 선택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 지방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 제고
- 광역/기초의원의 역할 이해증진으로 평상시 시민의 관심 증대
- 다당제 실현의 필요성 인식, 구현 노력
- 청년, 여성 등의 정치 참여, 의견 수렴 추구

·'2022 투표로 만드는 부산' 슬로건 제정

- 부산MBC의 제 8회 지방선거 방향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관심을 높이도록 하는 보도로 설정하고, '2022 투표로 만드는 부산'이라는 슬로건을 정해 이에 부합하는 기획보도를 준비하기로 함.

·기획보도 아이템 목록

기획 제목	방송일	보도 제목	담당기자	보도 내용
투표를 안한다 구요?	5/9	저조한 투표율 심각, 소중한 한표의 가치	민성빈 송광모	지방선거에 대한 이해 증진, 유권자의 주권행사 의지 증대 지방의원 선거 유권자 관심 제고
	5/10	임기 못채운 단체장 11명, 198만 표 증발	송광모	
	5/11	부산시의원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는?	민성빈	
	5/12	기초의원 무용론? 오히려 더 잘뽑아야!	민성빈 송광모	
기초의원 선거도 치열	5/13	부산 첫 4인 선거구 '기장군 다'	박준오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거대 양당 중 심 선거 문제 분석, 기초의원 선거 유권 자 관심 제고
	5/14	쪼개기 혼란 속 기초의원 치열한 선거전	박준오	
	5/20	부산 무투표 당선 35명, 사라진 선택권	박준오	
거대양당 공천의 문제점	5/16	윤창호 사건 이후에도...음주운전 무더기 공천	송광모	14일 마감된 후보자 등록 결과 문제점 분석
	5/17	여성·청년 후보 부족, 개혁공천 헛구호	민성빈	
지방선거 여론조사	5/18	부산시장, 교육감 여론조사	민성빈 송광모	KBS부산과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발표
	5/19	기초단체장 여론조사	민성빈 송광모	
공약/ 후보, 검증과 팩트 체크	5/23	부산시장 후보 3명의 말 말 말, 팩트는?	송광모	시장 후보의 공약, 후보별 논란 등을 팩트체크, 유권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공약 분석, 정보 제공
	5/24	원전이슈 부산시장 후보 3명의 답은?	송광모	
	5/25	같은 듯 다른 2029년 신공항 개항론	송광모	
	5/30	'지하차도 참사, 엘시티, 전과' 해명은?	송광모	
MZ세대, 부산시장 후보 청문회	5/25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후보 편	민성빈	대학생들이 직접 질 문지를 만들어 후보 들을 찾아가 묻는 인터뷰 진행
	5/26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편	민성빈	
	5/29	정의당 김영진 후보 편	민성빈	
투표를 합시다!	5/31	지방선거 투표는 이렇게!	민성빈	복잡한 투표절차 체 험식으로 소개

※ MZ세대, 부산시장 후보 청문회의 경우 후보별 각 30분 분량 풀버전은 유튜브 '부산MBC 뉴스 채널'에 공개

시민선거캠프 ‘동백’ 활동으로 돌아본 지역언론 선거보도

박찬형 시민선거캠프 ‘동백’ 운영위원장

.....

시민선거캠프 ‘동백’ 사업은 지난 4-5월에 걸쳐 2개월 여간 부산참여연대와 부산공공성연대, 사회복지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올댓E&R이 공동주최하고 부산지하철 노동조합과 부산의 커피기업 더 리터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번 제8회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에 실시되는 선거로 대선 결과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정치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선과는 차별화된 지방선거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중앙 정치 논리가 아닌 정책선거 중심으로, 둘째 시민들이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과정을 조금 설명하자면 먼저 시민 1,072명으로부터 ‘100자 공약’을 제안 받았고, 이를 다시 성별과 세대별 단어 구름 방식으로 핵심 단어들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1,000개가 넘는 공약을 최종적으로 5개 분야 100개의 우선 순위 공약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부산시장 후보자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인지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신문과 공동기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소개 보도가 국제신문(4월13일)에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했지만, 공동기획 언론사가 있어서인지 다른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1주일 후에 한겨레 신문(인터넷)에만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때는 저희가 1,000명의 시민 공약을 제안받는 단계였고, 생각만큼 시민참여가 원활하지 않아 걱정을 좀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광주 MBC(4월 27일)에서 여수와 부산에서 진행되는 상향식 공약 제안 사례로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4월까지 지역 언론이나 방송이 지방선거와 관련한 특별한 콘셉트나 기획이 없었습니다. 즉 언론도 대선의 결과와 분위기에 그냥 휩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대표, 지역의 정책을 토론하는 장으로써의 지방선거를 보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선부터 일관되게 중앙 정치권 및 새로운 권력과 네트워크가 가능한 지역 인물은 누구인가? 라는 식의 ‘라인(끈) 잡기식’ 보도가 많았습니다. 이는 중앙 권력과 라인 형성이 바로 지역 발전이라는 등식을 지역 언론이 프레임화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실상 팩트를 표면에 내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중앙에 연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이며, 또 그가 마치 실세인 양 사실을 호도하는 아주 부적절한 선거 프레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 프레임은 일반적으로 후보자와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하는 기사들로 등장합니다. <박형준 출정식 보수 총집결, "국힘이 부산에서 세긴 세네"> (5월 19일 부산일보) 또는 지방선거를

중앙선거와의 대결로 프레임화하는 방식입니다.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박형준 57.6% vs 변성완 29.4%> (5월 11일 부산일보) 이 기사에는 윤설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슬그머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도 방식의 결정판은 <'현역 선봉' 민주, '윤희 기세' 얼마나 막아낼지가 관건> (5월 18일 부산일보)의 보도에서 잘 드러나듯이 지방선거를 마치 중앙 권력과의 대결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각 후보자들의 인터뷰를 게재하는 방식도 형평성 논란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는 <[인터뷰] 박형준 “새 정부와 원활한 협력 관계·다양한 인맥, 나의 최대 강점”>, <박형준 “산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같이 추진돼야”>,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은…> (5월25일 부산일보) 라는 식으로 동일한 날 세 차례가 보도됩니다. 김영진 후보의 경우는 인터뷰 영상 인터뷰와 함께 <“진보정당다울 때 지지율 최고… 윤 친원전 정책, 꼭 막겠다”> (5월 4일 부산일보) 보도 되었고 변성완 후보의 경우는 영상 인터뷰 형식으로 <변성완 “참신함·전문성·행정 경륜, 내가 박형준 시장보다 뛰어나”> (4월 26일 부산일보) 한 차례 보도되었습니다. 인터뷰 일정은 후보들의 스케줄을 고려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언론에서 인터뷰의 형식과 보도 방식은 통일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22일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지난 제8대 부산시의회 시의원의 경우, 각 후보에 대한 의정 활동과 객관적인 평가들은 사라지고 시의원들은 생뚱맞게도 ‘윤 대통령과 싸운 선거 결과’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방 자치와 지역 분권을 부르짖는 지역 언론이 버젓이 이렇게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와의 대결 프레임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동백’ 사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시민 100대 공약’ 제안 결과와 키워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도 자료로 냈습니다. 이에 대한 보도 역시 지역에서는 국제신문이 유일했습니다. 지역 신문이 아닌 연합뉴스(5월 18일)와 한겨레(5월 19일)에서만 관련 기사가 다루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4월 말경에는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살리지 못한 4인 선거구의 2인 선거구로 쪼개기와 관련한 주요 선거 이슈가 있었지만, 역시 지역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이지 않았습니다. 매년 선거 때마다 양대 정당 중심 선거 보도의 문제점과 지역 중심, 시민 공약들이 논의되거나 공론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언론보도는 ‘중앙 정치권 줄 대기’ 프레임을 통해 지방선거를 좌지우지해 왔고 이번 선거는 그 피해가 절정에 달한 지방선거 보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난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백 사업은 ‘시민제안 100대 공약’을 각 부산시장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의 답변에 대한 논평을 냈지만, 선거 운동 막바지 기간이라 그런지 사실상 지역 언론에서는 이 논평에 대한 보도가 전무 했습니다. 오히려 인터넷 언론(노컷 뉴스 5월 25일, 오마이 뉴스 5월 20일)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볼 수 없는, 각 후보의 정파적, 정책적 방향들을 잘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후보자들이 말로만 시민 공약을 채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약의 이행 여부를 시민에게 다시 한번 약속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지만, 지역 언론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력한 후보자이거나 당선이 확실한 후보자의 정책과 방향에 대한 꼼꼼한 평가들이 필요한데, 지역 언론이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후보자의 공약을 점검하고 그것을 특정 후보자가 방송 토론회에서 인용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는 모 시민단체를 특정 정당의 선전부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 어떤 지역 언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언론의 후보자 검증이 주로 토론회와 여론조사가 중심인 환경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과 공약 검증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방송 토론회의 영향력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대선과 지선 과정에서 열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제대로 된 정책 공약이나 답변을 내놓지 못해도 당선되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언론은 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정책 검증을 통해 시민과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하지만, 그러한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플랫폼 또는 소통의 장도 거의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여전히 중앙 vs 지방의 대결 프레임을 답습하고 그것에 편승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의 역할이 약화하고 축소되자 오히려 그들은 권력의 등에 올라타는 전략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지역 언론들이 함께 이번 '시민선거캠프'와 같은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중앙에 줄 세우기' 프레임으로 지방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미리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8대 지방선거에 대한 지역 언론의 자체 평가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묻지마 선거' 에 따른 선거 결과는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시민적 불신감만 커질 뿐입니다. 좀 더 일찍 시작해서 좀 더 촘촘하게 시민선거캠프 동백과 같은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했다면 더 많은 시민의 의견과 후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정책과 토론이 있는 선거를 통해 투표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평가를 해봅니다.

내가 본 지방선거 보도, 이것이 문제였다

오혁진 부산민언련 2022 지방선거 보도 시민모니터단

1. 거대 양당 중심, 군소 정당 배제

2022 지방선거 보도에서 <국제신문>, <부산일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을 중심으로 보도하며 사실상 정의당을 포함한 군소 정당을 배제했다.

정의당 김영진 후보는 올 1월 출마의사를 밝히고 녹색당, 노동당, 진보당과의 연대를 통해 가장 빨리 후보를 확정지었다. 하지만 <국제신문>, <부산일보>는 거대 양당의 공천과 예비후보 등록하지 않은 변성완, 박형준 후보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그리고 본격적인 선거 이후에도 김영진 정의당 후보는 계속하여 기사에서 배제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박형준은 현안해결 ‘고공전’, 변성완은 대민접촉 ‘지상전’>(국제신문, 4/22), <민주 변성완 원팀 출발..국힘 박형준은 등판 예열>(부산일보, 5/10), <올림픽 유치 불붙인 변성완, 기업유치 확대 외친 박형준>(국제신문, 5/13), <변 “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박 “부산을 영어상용도시로”>(부산일보, 5/19)와 같이 제목과 사진에서 정의당 김영진 후보를 제외시켰다.

이와 같은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거대 양당 중심의 보도 양상은 사실 언론사 선거 보도의 고질적인 문제다. 하지만 이번 2022년 선거에서 유독 눈에 띄는 지점은 <국제신문>, <부산일보>가 그동안의 구색맞추기식 보도마저 포기하고 정의당 후보를 원천 배제하는 기사 ‘형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5월 20일 <국제신문>은 유튜브 생중계로 부산 시장 후보 맞짱 토론을 생방송하겠다고 발표했다. ‘맞짱 토론’이라는 제목에서 명백히 알 수 있듯 이 토론 방송은 정의당 김영진 후보를 배제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산일보의 <변성완, 박형준 ‘품격 있는 선거’ 손잡았다>(부산일보, 5/19)를 보자. 이 기사는 부산일보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개시를 앞두고 변성완, 박형준 두 후보만을 초청하여 만든 기획 기사다. 그리고 <후보가Q 후보에게>라는 기사 형식 또한 마찬가지다. <박 후보, 플로팅 공항 혼선 야기, 변 후보, 행복주택 오락가락 왜?>(부산일보, 5/20)는 변성완, 박형준 후보의 질문과 응답으로 구성된 형식의 기사다.

2. 개발 사업에 치중된 선거 의제

<부산일보>, <국제신문>은 지방선거 의제로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개발 사업에 집중했다. 구체적으로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해법, 부산선거 ‘핫이슈’ 부상>(부산일보, 5/18)를 보자. 이 기사에서는 “6.1 지방선거를 2주가량 앞둔 가운데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해법이 지역 최대 선거 이슈로 급부상

하는 분위기”라고 하며 ‘가덕 신공항의 조기 개항 해법’을 지방 선거의 주요정책으로 의제 설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 해법’ 보도는 여러 문제가 있다. 첫째,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 해법’은 정부, 국토부와 긴밀한 논의할 사안인데 과연 언론사의 주장대로 지역 최대 지방 선거 이슈로 급부상할 의제인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 언론사의 과도한 가덕 신공항 띄우기는 다른 정책 이슈를 배제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가령 <“참신함, 전문성, 행정경륜, 내가 박형준 시장보다 뛰어 나”>(부산일보, 4/27)에서는 인터뷰 질문이 가덕도신공항, 2030부산월드 엑스포와 같은 개발 사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셋째, 가덕 신공항 보도는 선거 의제를 제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과정에서 진보적 정책을 제안하는 진보정당을 철저히 배제시킨다. <박-조기 개항 방안 “총괄 사업, 부유 식으로 가능”, 변-공은 못 넘겨 “개항 늦춰진 책임은 박 후보”>(부산일보, 5/18)에서는 김영진 후보를 제외하고 변성완, 박형준 후보로만 3면 전체를 기사화했다. 또한 <국제신문>에서도 <변성완-박형준 ‘가덕 조기개항 방안’ 대결>(국제신문, 5/18), <플로팅 공항 놓고 여 “해상도시 모델” 야 “희망 고문 말라”>(국제신문, 5/18)와 같이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 두 정당만이 강조된다.

3. 오히려 저널리즘 기본에 충실할 때

선거 보도의 문제점을 제기할 때마다 언론사들은 의례적으로 부족한 기자 인력을 그 원인으로 꼽곤 한다. 언론사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면 이제 언론사들도 기존 현실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예컨대 선거 기간에 집중적으로 쏟아내는 선거 운동 행보/동정 기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선거 분위기를 전달하는데 의미는 있겠지만 반복되는 행보/동정 기사는 유권자보다는 차라리 선거 후보들을 위해 보도하는 것 같다. 5월 24일 <부산일보> 4면 상단의 ‘부산시장 후보 동행 취재’를 보자. <차안 가덕 정책 공부 자료, 힘들어도 항상 미소 스마일 맨>, <김밥 봉지 든 채 장소 이동 종일 강행군에도 차분한 표정>에서는 후보자와 기자의 ‘밀착’을 사진을 통해 강조하긴 했지만 사실상 선거와 큰 관련 없는 후보의 인품, 소탈함 등을 부각하는 미담성, 홍보성에 그쳤다.

그리고 인터뷰 기사도 지금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 부산 시장 선거 인터뷰는 너무나도 형편없었다. 커다란 사진, 선거 포부, 자체적 평가를 제외하면 인터뷰 내용 자체도 적을뿐더러 그나마 있는 인터뷰 질문도 가덕 신공항, 부산 엑스포에 치중되어 있다. 오히려 <후보가Q후보에게>의 후보 질문들이 언론사의 질문보다 훨씬 나왔는데, 인터뷰 기사가 전통적인 저널리즘 형식인 것을 고려한다면 <국제신문>,<부산일보>는 확실히 이 지점에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